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12일 (음력 12월 27일) 월요일

광주 용봉지구 오락실 불법영업 극성 단속 시급



뉴스 사진

광주시 북구 용봉지구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성인오락실이 불법 영업으로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성인오락실은 갖가지 변칙적인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어 당국의 단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등록 및 인·허가를 받은 성인오락실 등 44개가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 대부분은 합법을 가정한 불법 영업으로 사행성 오락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첨금을 높여 손님들을 현혹하고, 승률 조작은 물론 이른바 '불법기계' 까지 유통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이용객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나 무직자, 주부 등 경제적 자립도가 극히 낮아 그 피해가 날

승률 조작에 '불법 기계'까지...서민 지갑 노려 1인 2대이하 제한 규정 유명무실 최대 10대 돌려

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휴일 낮 용봉지구의 한 성인 오락실에는 대낮인데도 어둠 컴컴한 분위기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기계소리가 요란했다.

50평대 규모의 실내에 탁한 공기는 물론 리얼 퓌어는 냄새 등이 섞이면서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여 대가 즐비하게 늘어진 기계 앞에는 한방의 요령을 바라는 사람들이 3분의 1가량 자리를 차지했다.

잠시 후, 손님을 가장한 환전꾼이 실내로 들어와 상품권과 현금을 교환했다.

업주는 고객의 게임 점수를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이중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기도 했다.

성인오락실은 1인 2대이하로 게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사람이 평균 3~5대, 많게는 10대 이상 게임기를 돌려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시간당 1만원(성인오락실, 허가업소) 많게는 4만원(전체이용가, 등록신고업소)까지도 현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허

다하다.

그동안 오락실에서 2천여만원을 탕진했다는 한 이용객은 "현재 운영되는 성인오락실들은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작년에도 환전 등 불법 영업으로 69건의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및 압수품으로는 2017년 11월 1일날 게임기 84대와 현금 570만원을 압수하였으며 2017년 총 압수품은 게임기 700여대와 현금 2500만원을 압수했다.

북구청 담당자는 "사법권이 없다보니 오락실 등록 및 인허가시 운영자에게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불법이라고 전하고만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을 방문해 파악을 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가면 쓴 En

사인 최영미씨가 원로 유명 시인을 사실상 실명 비평하는 시를 발표해 문단이 술렁이고 있다.

최씨가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에 발표한 총 7면 27행의 시 '괴물'이 여성 후배의 몸을 합부로 만지는 등의 후행을 자지른 비판 대상을 '단상생'으로 칭하고 '100원의 시집을 파는'이나 노벨문학상 후보를 합의하는 '노벨상 후보'라는 수식어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황해문화 편집부 관계자는 "처음 원고를 받고 어쨌든 가너무 강해 그대로 실을지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나왔지만 최근 사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문 폭로 이후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 바람을 타고 두들겨 주목받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쇄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 사진=뉴스시스



최영미



시민들



최영미

장흥군 대덕읍, 학습용 컴퓨터 전달... '스스로 학습 지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학습용 컴퓨터 3대 지원

장흥군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전, 김형철)는 지난 5일 초·중고 아동을 둔 한 부모, 조손가정 37정을 방문해 학습용 컴퓨터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에 컴퓨터가 있지만 구입한지 오래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가정의 소득격차가 화력격차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에는 이웃사랑 나눔의 손 더하기 기탁금 300만원이 활용됐다.

컴퓨터를 지원 받은 권모 군은 "낡고 오래된 컴퓨터가 고장이 잦았는데 이제 새 컴퓨터가 있으니 혼자서도 얼마든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그때마다 궁금증을 바로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밝혔다.

이재전 대덕읍장은 "후원자 분들의 소중한 기탁금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바탕이 되며, 늘 가정마다 어려운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더 많은 나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홍필 기자

전남도, 가뭄 대비 용수 개발비 17억 긴급 투입

전남도는 차질없는 물 영농을 위해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해 시군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비는 신안 진도 고흥 등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하천 배수로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여수와 퇴수를 저수지에 모으는 물채우기를 위한 간이용수장 및 물막이 설치사업에 쓰인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보된 사업비는 전남도가 지난 연말부터 가뭄 현황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 규모는 전국 42억 8000만 원 가운데 32%로 가장 많이 배정받았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가뭄 극복은 물론 항구적 농업용수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민들도 하천이나 배수로 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물 아껴쓰기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함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